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왼쪽은 취미교실로 운영한 분재반 교육 모습, 오른쪽은 직업교육으로 진행된 지게차 운전교육 모습.

명문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동광산업과학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호응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석기)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문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직업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광산업과학고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회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의 경우 지게차 운전교육반, 굴삭기 운전교육반, 특수용접반, 제과제빵반

등 4개 과정이다. 또 취미교실로 분재반도 운영했다. 특히 이번 직업교육의 운영방침을 살기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등으로 정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열린 수료식에서는 지게차 운전 13명, 굴삭기 운전 25명, 특수용접 10명, 제과제빵 24명, 분재반 27명 등 모두 99명이 수료식을 가졌다.

동광산업과학고 관계자는 "이번 직업교육이 전문계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18일부터 31일까지 교육결과 분석 및 정산보고를 통해 새해에는 보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김다빈 사격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

고성고 2년 ... 10m 공기소총 여자 부문, 도내 유일 상비군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18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할 거예요."

고성고등학교 2학년 김다빈(18세, 사진)이 사격부문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김다빈은 지난달 28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교육감기 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여자 고등부에서 400만점에 393점으로 1등을 차지해, 5개 대회의 종합평가로 이뤄지는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과정에서 최종 확정됐다.

현재 10m 공기소총 여자 부문에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김다빈이 국가대표 상비



군으로 뽑혔다. 대진초등학교에서 수영으로 운동을 시작했던 김다빈은 강원체중 1학년 때 사격코치의 권유로 수영에서 종목을 바꿔 사격에 입문하게 됐다. 그후 대진중학교 2학년으

로 전학을 왔으나, 사격부가 없어 2년의 공백 기간을 보냈던 김다빈은 사격부가 있는 고성고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됐다.

이후 김다빈은 전국대회와 도민체전 등 각종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 금메달을 포함해 다량의 메달을 획득해 일찌감치 사격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다.

본인의 최고기록은 400만점에 397점이다.

김다빈은 "사격은 무엇보다도 집중력과 체력을 집중 보강해 세계무대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2일 오후 3시 내부위원 10명, 외부 위촉위원 6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자료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기초를 다졌다. 최광호 기자

고성문화원 제17회 문화의달 기념공연



고성문화원(원장 황연인)은 지난 3일 오후 7시 고성문화의 집 3층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문화의 달 기념공연을 개최했다. 최광호 기자

경조사 · 모임 · 구인 · 구직 · 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